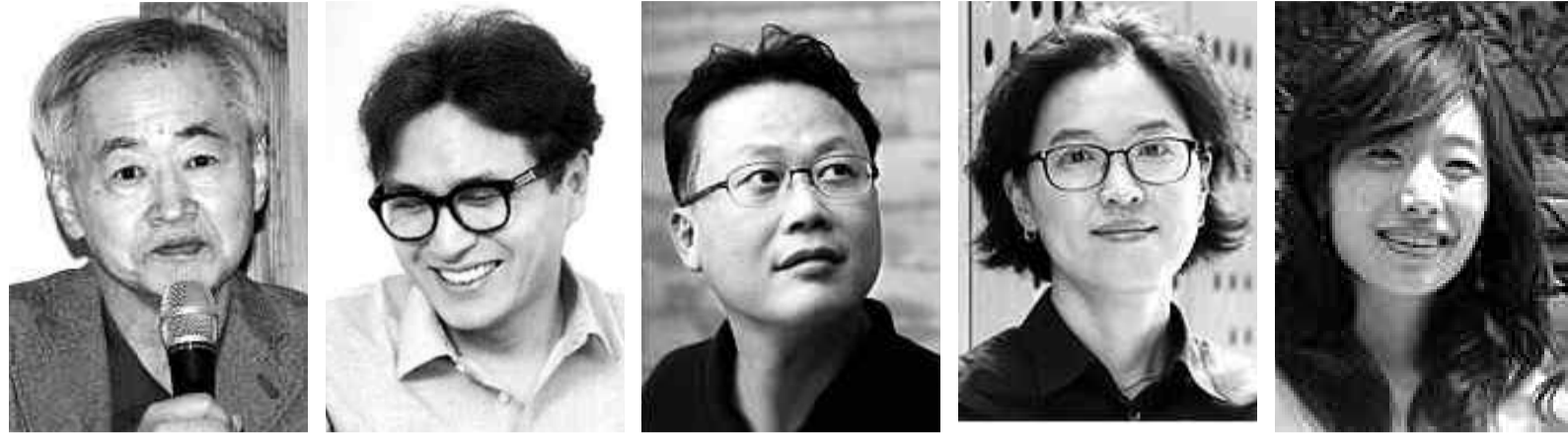


졸깃한 글맛 ... 소설 신작 쏟아진다



새해에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소설가들이 작품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윤홍길, 이기호, 김연수, 정보라, 윤고는 작가.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등 영향으로 분위기가 암울했다. 그로 인해 현실의 고단함으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팽배했다. 문학 장르 가운데 소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런 연유다.

개요년 올해도 소설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학을 매개로 위로를 받고 잠시나마 고달픈 현실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도피처를 삼으려는 심리 때문이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작가는 바로 등단 55주년을 맞은 윤홍길 소설가. 1973년 발표된 그의 소설 '장마'는 70년대 산업화가 불러온 농촌의 붕괴, 도시 빈민 문제 등을 다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두 아들이 각각 국군과 인민군 빨치산에 징집돼 벌어지는 갈등과 아픔을 극적인 감동으로 그려 독자들에게 울림을 줬다.

올해 윤 작가는 집필에서 출간까지 20년이 걸린 '문신' (4·5권, 문학동네)을 펴내 대작을 완간한다. 소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비극을 겪는 한 가족의 엇갈린 삶을 다룬다. 특히 이번 소설은 '장마'를 비롯해 '완장', '아홉 쉼터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의 작품으로 우리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의 장편소설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올해 등단 43주년을 맞는 이인성 작가도 신작 '돌부림' (문학고지성사)을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1980년 계간 '문학고지성' 별호를 통해 장작활동

'등단 55주년' 윤홍길 작가 집필·출간 20년 걸린 '문신' 완간 이인성 작가, 23년만에 소설집 정보라 작가, 판타지+호러물 발표

을 시작한 작가는 그동안 연작장편소설 '낮선 시간 속으로'를 비롯해 장편 소설 '한없이 낮은 숲길', 문학잡지 '식물성의 저항' 등을 펴냈다.

이인성이 발표한 마지막 소설집은 1999년 '강아귀에 섬 하나'로, 이번 소설집엔 중편 '돌부림'과 '한낮의 유령' 등이 수록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저주 토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도 새 작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저주토끼'에 대해 "현대 사회에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매우 현실적인 공포와 잔인함을 다루기 위해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고 평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될 소설은 판타지와 과학, 호러를 아우르는 장편 소설이다. 이번 작품에서도 '마법적 사실주의'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흥미와 글맛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소설가 김연수는 가을에 장편 '빅아이' (문학동네)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특히 그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6개월간

원양어선을 탔던 것으로 알려져 소설 흥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글맛이 남다른 이기호 작가는 여름에 장편 '명량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 (가계·문학동네)을 출간할 예정이다. 특유의 유티가 넘치는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역시 이기호'라는 찬탄을 받는 터라 기대가 된다.

구명모 소설가는 4년만에 소설집 '있을 법한 모든 것' (문학동네)을 펴낼 예정이다. 2022년 '밤의 여행자'들로 영국 추리작가협회 대거상을 수상한 윤고는은 장편 '불타는 작품' (가계·은행나무)을 상반기에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등단해 소설집 '루빈의 숲' '여름의 맛' 등을 출간했던 하성란 소설가도 하반기에 장편 소설을 펴낼 것으로 알려졌다. '동인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0년 '바늘'로 등단한 천운영도 10년 만에 소설집 '반에 반의 반' (문학동네)을 발간하며, 장이현도 장편 출간을 계획 중인 것을 알려졌다.

외국 작가들의 작품집도 눈에 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의 국내 미출간작들이 나올 예정이다. 열린책들은 에르노가 주변 세계를 관찰한 일기 '표면의 삶'을 펴낼 예정이며, 201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올가 토카르추크 소설집 '기묘한 이야기'는 민음사에서 여름에 출간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17일 전남대·19일 여수예술마루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협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은 17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 공연장에서 제370회 정기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를 연다.

홍석원 광주시향 예술감독의 지휘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작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날 협연자로 나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제54회 프래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이자 지난해 열린 제12회 시벨리우스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자다. 2014년 카네기홀에서 데뷔한 뒤 파비오 루이지,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했다.

무대에는 먼저 드보르작을 유럽의 스타덤에 올린 '슬라브 무곡'이 오른다. '슬라브 무곡'은 밝고 쾌활하며 격렬한 민족 무곡의 특성이 담겨있다.

이어 선보여지는 '바이올린 협주곡'은 향토 민요를 소재로 사용한 작품으로 드보르작만의 특성이 적절히 가미됐으며 민족적 색채와 고전적 구성이 겸비됐다는 평을 받는다.

다음으로 미국에 머물던 드보르작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만든 곡 '신세계'를 선보인다. '신세계'는 밝고 역동적이지만 미국에서 3년간 머무르며 느낀 낯선 땅에 도착한 불안함부터 꿈속에서도 그러는 고향에 대한 애절함이 담겨있다. 인디언과 흑인 음악의 요소가 변형된 형태로 포함됐으며 체코 이주민 총리의 음악적 인상도 반영됐다.

해당 공연은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도 펼쳐진다. 문의 062-613-8241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리워하며 만든 곡 '신세계'를 선보인다. '신세계'는 밝고 역동적이지만 미국에서 3년간 머무르며 느낀 낯선 땅에 도착한 불안함부터 꿈속에서도 그러는 고향에 대한 애절함이 담겨있다. 인디언과 흑인 음악의 요소가 변형된 형태로 포함됐으며 체코 이주민 총리의 음악적 인상도 반영됐다.

오케스트라로 여는 새해 첫 주말



알레지오, 7일 금호아트홀

알레지오 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가 7일 오후 7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알레그로와 '매우 느리게' 연주 한다는 뜻이 담긴 아다지오가 합쳐진 알레지오는 '모든 음악은 빠름과 느림 사이에 있다'는 의미가 갖고있다. 이들은 2014년 1월 창단대 매해 정기연주회, 수시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꾸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공연의 막은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6번 가단조 작품 번호 3'으로 열린다. 이어 사라본의 영화 '접속' OST '연인의 협주곡'을 연주한 뒤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을 선보인다.

이어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듀오 무대로 누에보 탱고의 거장이자 탱고의 대중화에 힘쓴 피아졸라의 '남쪽으로 돌아간다'와 '바친 궁전의 작은아이'

를 연주한다. 다음으로 마뉴엘 폰세에 곡을 하이페츠가 편곡한 경쾌한 리듬과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작은별'을 무대에 올린다.

첼로 앙상블의 무대도 마련됐다. 쇼스타코비치의 '전주곡'을 첼로 무대와 피아노가 함께 선보이고 비발디의 '협주곡 사단조'를 무대의 첼로가 연주한다. 스웨덴의 가수이자 작곡가 오스카 안펠트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를 관객들에게 펼쳐 보인다. 이어지는 보컬 듀엣 무대에서는 송유진의 '꼭 안아줄래요'와 양희찬이 작사하고 장혜선이 작곡한 '꿈꾸지 않으면'을 이영운(송원초 4)과 이아윤(송원초 2)이 노래한다.

또 슈베르트가 20세의 나이에 작곡한 마티아스 클라우디우스의 시에 곡을 붙인 현악4중주 '죽음과 소녀'와 영국의 작곡가 찰 젠킨스의 합주 협주곡 '필라디오'를 끝으로 무대의 막을 내린다. 전석 2만 원, 문의 010-4775-2879.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금은보다 귀한 '아시아의 玉 문화'

국립나주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고대 마한과 백제권은 옥 문화가 발달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지난 2021년 '금은보다 귀한 옥' 심포지엄과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는 고대 마한과 백제권의 옥 문화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옥 문화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나주박물관(관장 은하수)은 세 번째 학술총서 '아시아의 구슬 문화(사진)'를 발간했다. 이번 학술총서는 지난 2021년 기획특별전 '금은보다 귀한 옥' 연계 심포지엄으로 같은 해 12월에 개최한

'아시아의 옥 문화' 내용을 정리했다.

'아시아의 구슬 문화'는 총 18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고고학 및 보존과학 연구자 12명이 7개 주제로 집필했고 6명이 토론문을 작성했다.

또한, 집필진에 중국 연구자 2명과 일본 연구자 1명이 참여해 국의 연구성과를 담았다.

학술총서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심포지엄 당시 여러 사진도 함께 실려 있어 자료적 가치로도 손색이 없다.

한편 나주박물관은 2019년 첫 번째 학술총서 '나주 신촌리 금동관의 재조명'을 발간했다.

이후 고대 영산강 유역 문화 연구성과를 학술총



서로 펴내고 있으며 향후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를 검토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를 학술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